



진정한 사랑 · 상대적 박탈감 주는 사회적 분위기 개선돼야

자살은 본인은 물론 가족, 사회에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절망감을 안기게 된다.
후유증은 길게 남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커다란 피해는 사회가 지게 된다.
'쓰고 남은 농약 보관 · 관리 철저 · 판매 규칙 준수' 로 농약 자살환자를 줄여야 한다.

농약(작물보호제)은 작물 생산 증진이라는 순기능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인체 독성이라는 역기능이 있다. 잔류 농약에 의한 보건학적 문제뿐 아니라 최근에는 자살 수단으로 농약이 사용되어 그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다. 이에 필자는 농약을 자살 수단으로 선택한 환자를 치료해 온 지난 30여 년간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농약과 자살에 대한 문제를 정리해본다.

자살의 원인 및 수단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시도할 수 있는 동물은 인간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생살이는 고통의 바다를 떠돌아가는 것이라고 묘사되고 있듯이 사실 한번 짚은 죽음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죽하면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그렇게도 많을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성적

인 느낌일 뿐이다. 따라서 이 같은 감성적인 느낌은 대부분의 경우 이성애 의해 통제되고 실제 죽음의 시도를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

자살의 원인은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양하다. 잘 알려진 것처럼 자살 율은 선진국에서 더 높다. 소위 잘 먹고 잘사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보다는 의식주에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는 사실은 자살이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정신활동 결과라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가 조사한 우리나라에서의 흔한 자살 원인을 보면, 염세주의가 가장 많고 이어서 가정 사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우울증, 만성 질병(불치의 병 포함) 순이다. 그러나 가끔 남을 겁주기 위하여, 혹은 애정사, 학교에서의 왕 따, 인터넷 게임 중독,

도박 등도 원인이 되고 있다.

자살 수단은 문화적으로 지역적으로 차이가 많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목을 매는 것이 가장 흔한 방법이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총기소지가 허용된 나라에서는 총기를 이용한 경우가 많다. 동양에서는 독극물 음독이 흔히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 농약중독의 원인

농약중독은 대별하여 급성 중독과 만성 중독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농약에 노출된 이후에 바로 중독 증세를 유발하기 때문에 진단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만성 농약중독은 여러 해 동안에 반복적으로 농약에 노출된 경우에 발생하는 신경계 이상이 보통이기 때문에 진단이 쉽지 않으며 학자들간에도 이견이 많다.

본 원고에서는 자살 수단으로서의 농약 사용에 대한 것이 주제인바 만성 농약중독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급성 농약중독의 발생 형태는 대별하여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농약을 직접 살포하는 농민들이 농약 살포 중 혹은 직후에 두통, 오심 구토, 어지럼증, 허약 감 등의 증세가 심해지는 경우이다. 대부분 농약 희석배수를 권장량보다 강하게 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살포 중 흡연, 음주, 음식 섭취 등 주의사항을 잘 지키지 않거나 우비, 마스크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농주를 마시며 농약을 장시간 살포하는 것이다. 술은 일종의 마취제이기 때문에

몸에 나타나는 이상 증세들을 약화시키게 된다. 마치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꺼버리고 운전을 하는 것과 같다. 다행스럽게도 살포 중 발생한 급성 농약중독은 하루 이틀 안정을 취하면 자연 회복된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되면 20년 30년 후에 심각한 신경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 원인은 자살을 목적으로 혹은 사고로 원액을 음독하는 경우이다. 사실 급성 농약중독으로 입원하는 환자의 95%는 자살목적으로 농약을 음독한 경우이다.

왜 농약이 흔한 자살 수단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치 않다. 그러나 필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래 농업 국가였다. 지금은 인구의 5% 정도만이 농사를 생업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처럼 농업은 우리의 주요 생업이었다. 대다수의 국민이 농촌을 자기의 뿌리라고 여기고 있으며 농촌에 향수를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모든 사



홍세용
순천향대 천안병원
농약중독연구소장



생각해 봅시다

람들이 농사와 관련된 것들에 익숙해져 있거나 가깝게 느껴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농약에 대하여서 직접 간접적으로 알고 있고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게 한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한약을 달여 먹던 습관이 배어있다. 지금도 민간요법으로 탕약 같은 것을 마시는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마시는데 익숙하게 하지 않나 생각한다. 아마도 이것이 농약 중에서도 가루약 보다는 액체를 선택하는 이유일 것이다.

자살 환자들은 농약을 어떻게 구입하나?

필자가 농약으로 자살을 시도한 3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 한 바에 의하면 농약을 새롭게 구입하는 경우는 전체의 절반이 안 된다.

다시 말해 기존에 있던 농약을 음독하는 경우가 많다. 자살을 위해 농약을 구입할 때 특정 농약이름을 대고 구입하는 경우보다는 단순히 농약 혹은 제초제를 달라고 하여 음독하는 경우가 많다.

이상의 결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농약에 의한 자살환자를 줄일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즉 쓰고 남은 농약의 보관, 관리상 주의, 그리고 농약 판매에 관한 규칙 준수 등이 그것이다. 아무나 농약을 살수 없게 하는 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으나 시행 상 허점이 드러나는 것이 큰 문제의 하나이다.

농약을 자살수단으로 선택했던 사람들의 임상적 경과

필자가 근무하는 농약중독 연구소에는 연간 약 500명의 급성 농약중독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는다. 이들 중 95%는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며 사고 혹은 살포 중 중독 환자는 5%정도 내외이다.

사실 농약 중에서 인체 독성이 전혀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 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cell)는 해충이나 식물이나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 충을 죽이거나 식물을 죽이는 것은 결국 세포를 죽이는 것이다. 세포를 죽일 수 있는 약제는 인체 세포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농약은 많은 적든 필연적으로 인체 독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농약의 원액을 섭취하게 되면 약제에 따라 다양한 중독 증세가 유발된다. 인사고를 유발하는 살충제는 대부분 신경 마비제이며 제초제의 경우는 유해산소를 다량 만드는 경우이다. 이들에 의한 중독의 임상상은 음독 양, 음주 여부, 평소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서 다양하다.

필자가 임상 의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경우 사망 순간까지 정신이 명료하다는 점이다. 며칠 후면 사망하게 될 환자가 책을 보고 있다든가 집안일 걱정을 하는 것을 보면 사실 여간 안타깝지 않다.

다행스럽게 생존한 사람들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식으로 열심히 제 2의 인생을 살아간다. 이런 경우를 보면 순간적인

자살률 증가와 작물보호제

판단 잘못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지 모른다. 이런 이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자살 시도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 순간을 넘길 수 있는지, 무엇이 그들을 극단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지를 알고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

자살은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 사회에 게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절망감을 안기 게 되며 후유증은 길게 남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커다란 피해는 이 사회가 지게 된다. 그럼에도 자살 예방은 쉽지 않다. 그러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많은 경우 예방이 가능한 것 또한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사랑이다. 모든 자살은 진정한 사랑의 결핍과 연관이 있다. 가난하더라도, 우울하더라도, 주위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자살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단언컨대 주위에 진심으로 사랑을 주고받을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자살의 절반 정도는 감소하리라 본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는 전 단계는 상실감, 우울증, 절망감에 의한 고뇌의 순간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개선되어야 한다. 경

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낙오 되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는 정의로워야 하고 공정해야 하며 약자가 일어설 수 있는 제도가 잘 작동해야 건강한 사회이다.

셋째는 정신적인 문화의 가치 함양이다. 물질 만능시대가 된지 오래되었다. 정신적인 가치는 작아졌고 그 자리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쌓아 올리면 성공인 물질적 가치가 자리한다. 결과적으로 하나뿐인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줄어든 것이 자살 증가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좌절금지

결론

농약이 자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이미 다 알려졌다. 혹자는 농약 생산을 줄이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 일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소비자의 몫이다. 농약이 없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또 정부는 절대적 식량 생산량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대안들이 마련되기 전에는 우선 할 수 있는 일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하겠다. 농약의 유통구조 개선, 사용 후 농약 보관의 강화, 농약의 안전성 교육 등이 그것이다. 농약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질 그때까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하겠다. Y